

“목표는 우승…기복없는 팀 성장하는데 힘 보태겠다”

“밖에서 본 페퍼저축은행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로팀에서 우승은 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우승을 목표로 기복 없는 팀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유계약선수(FA)로 페퍼저축은행 새 식구가 된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31)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장 178cm의 고예림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에 입단해 그해 V-리그 신인선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IBK기업은행(박정아 FA 보상선수), 현대건설(첫 FA)을 거쳤고 24-25시즌 종료 후 두번째 FA 자격을 얻어 페퍼저축은행에 동지를 틀었다.

21일 금당산 등산 훈련을 마치고 페퍼스타디움에서 만난 고예림은 “지난 19일 팀에 합류했다. 시즌을 마치고 오랜만에 훈련을 시작하니 몸이 확실히 힘들었다. 새 시즌을 준비한다는 게 체감된다”고 밝혔다.

고예림은 가장 먼저 자신을 찾아준 팀이 페퍼저축은행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해주는 팀에 가고 싶었다. 장소연 감독님이 직접 연락 주셨고 그 진심이 전해져 입단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예림과 장소연 감독의 인연은 단순히 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아니다. 고예림은 한국도로공사 시절 세 시즌 간 장 감독과 함께 선수로 뛰었다.

고예림은 “감독님은 엄마 같은 느낌이 들고 포스트도 있다. 당시 장소연 감독님이 플레이코치여서 ‘장쌤’이라고 불렀다. 같이 운동하면서 배

고예림, 페퍼저축은행 합류

13년차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무릎 재활 완료 공격 자신감 회복 ‘아썬’ 조합 완성 단단한 팀 될 것

구에 대한 생각과 열정이 잘 맞았다. 감독님이 되신 뒤에도 그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아직도 무의식중에 ‘장쌤’이라는 말이 입에 먼저 붙는다”고 이야기했다.

팀 내에서는 박정아, 한다혜, 하혜진, 이한비 등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적응이 어렵지 않았고 밝혔다. 고예림은 “고교때 중학생인 한다혜와 같이 운동했었고 이한비와 하혜진도 친분이 있다”며 “(박)정아언니도 마찬가지다. 경기장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후배들도 성격이 좋아 적응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예림은 “광주에는 예전에 야구 보러 한 번, 시합하러 한 번 와봤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강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제 광주에서 지내게 된 만큼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 무릎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몸 상태가 최고라고 자신했다. 고예림은 “아프기 전에는 리스브보다 공격을 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프고 나서는 몸도 내 마음

대로 따라주지 않고 실력이 나오지 않다 보니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면서 “아팠던 시간도 길었고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지만 다행히 재활이 잘 됐다. 오히려 지금은 수술 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다. 몸이 좋아지니 리듬도 자연스럽게 돌아왔고 예전처럼 공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장소연 감독 부임 이후 시즌 두 자릿수 승수와 함께 단일 시즌 최다 승리, 승점 기록을 달성했지만 창단 후 4시즌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고예림은 페퍼저축은행의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는 “예전엔 어린 선수들이 많아 기복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어린 선수들도 기량이 올라와 있다. 그 흐름에 내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기복 없는 팀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 아시아쿼터 선수들과 조합이 완성되면 더 단단한 팀이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프로팀에서 우승은 한 번밖에 못 해봤다. 가장 큰 목표는 우승이다”고 덧붙였다.

고예림은 “광주 오기 전날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 코치님들에게 인사드렸다. 감독님이 ‘우리랑 만나면 살살해라’ 하셨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더 잘하고 싶더라”며 웃었다. 이어 “새로운 곳에서 뛰게 된 만큼 긴장하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싶다. 팬분들이 많은 지원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글·사진=조혜원 기자



페퍼저축은행 고예림이 21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새 시즌을 앞두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KIA 황대인 “몸상태 완벽…차분히 복귀 준비”



KIA 타이거즈 황대인이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퓨처스리그 kt위즈와의 경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부상으로 1군 3경기 그쳐 ‘장타보다 출루’ 집중 2군서 맹타

“현재 몸 상태는 완벽합니다.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황대인(29)이 조용히 1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부상으로 인해 1군 3경기 출장에 그쳤던 황대인은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2015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2순위로 KIA에 입단한 황대인은 2022년부터 풀타임 1루수로서 기회를 받았다.

당시 황대인은 129경기 타율 0.256 14홈런 91타점을 기록하며 커리어하이로 찍었다. 하지만 2023년 60경기 타율 0.213, 5홈런 26타점에 그치며 주춤했고 시즌 종료 후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까지 받았다.

절치부심한 황대인은 2024년 시범경기에서 10경기 타율 0.368 4홈런 12타점으로 맹활약하며 개막 엔트리에 합류했다.

그러나 개막 3경기 만에 왼쪽 햄스트링 부상

을 입었고 결국 황대인의 2024시즌 1군 출전 기록은 단 3경기로 끝났다.

설상가상 팀 내 입지도 흔들렸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타자 위즈덤을 1루수로 영입했고 FA 서건창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변우혁, 오선우 등 1루수 자원이 풍족하다. 황대인은 올 초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합명에서 시즌을 출발했다.

이에 황대인은 절치부심 중이다. 21일까지 황대인은 퓨처스리그 11경기에서 나서 28타수 12안타 7타점 타율 0.429를 기록했다.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난 황대인은 “오랜 시간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내고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 큰 스윙보다는 출루와 안타를 생각하고 있다. 자신감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대인은 “작년 시즌에 나도 우승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다. 처음엔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팀이 잘하고 우승하는 걸 보면 응원도 많이 했다. 조급함 대신 확실한 준비를 통해 그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광주 징계 사태, FIFA와 계속 소통”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 입장 밝혀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 정착 과정”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 징계 사태와 관련해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과 계속 소통하며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FIFA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대기여금은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제도다.

예전엔 연대기여금을 구단이 상대 구단에 직접 지급했지만, 미지급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FIFA가 영입 구단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을 받아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근 바뀌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FIFA 클리어링 하우스다.

김 전무이사는 “FIFA, 아시아축구연맹(AFC)과 소통하겠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는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본 구단 담당자가

인수인계 없이 휴직 한 탓에 연대기여금 송금을 못했다.

또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 K리그1 14경기과 코리아컵 2경기를 치렀다.

아울러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도 해당 선수들을 활용해 치렀다.

K리그1의 다른 구단들 사이에서는 광주가 치른 경기를 모두 0-3 몰수해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8일 광주와 홈 경기에서 진 포항 스틸러스는 프로연맹을 상대로 이의제기 절차를 시작했다.

선수 등록 업무의 주체인 축구협회는 ‘리그 운영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광주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축구협회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다.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 구단에 전달했으면서도 징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 줬다.

김 전무는 “미숙한 부분을 인지했다”면서도 “리그 운영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위 리그인 K리그의 안정성,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의의성’이 없었던 부분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 상황을 설명하는) 공문을 FIFA에 발송했다. 그 부분과 관련해 나오는 결정에 근거해서 남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전남체육 새내기 회장 3인방 “열정으로 도약 이끌겠다”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중책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전남도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장명호(47·바이애슬론), 문영준(60·펜싱), 나상표(63·세팍타크로) 회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체육회 소속 72개 종목별 회장 중에서도 기대를 모으는 ‘새내기 회장 3인방’이다. 처음으로 단체장 직을 맡은 신임 회장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열정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앞세웠다. 남다른 열정과 실천력으로 무장한 이들은 최근 신임 회장 선임장 수여식에서 책임감 있는 협회 운영과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장명호 바이애슬론 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현재 남해건설기계 대표이사이자 해남읍체육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장 회장은 “열악한 동계 종목 환경 속에서 우수 선수 발굴과 인프라 확충,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



바이애슬론 장명호



펜싱 문영준



세팍타크로 나상표

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4, 은 2, 동 2개 메달로 전국 4위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문영준 펜싱 회장은 ㈜케이티비 대표이사이자 목포대학교 재광동문회장, 전남도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학창 시절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였던 그는 선수와 지도자, 체육 행정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전남펜싱의 내실 강화를 약속했다. 문 회장은 “육성팀 학교장, 시·군 체육 회장 등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

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나상표 세팍타크로 회장은 무안에서 ㈜이영산업을 운영하며 팀 창단과 함께 세팍타크로 부흥에 힘쓰고 있다. 나 회장은 “제104회 전국체전 5위 영광을 되찾겠다”며 “지

난해 전국체전 14위 부진은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종목 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원 기자